JPEE 실천공학교육논문지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평생능력 개발

J. Pract. Eng. Educ. 9(2), 155-165, 2017

대졸자의 대학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에 따른 특성 차이: 대학생활, 취업목표, 첫 일자리 만족을 중심으로

Analysis of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y College Graduates'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Regret: Focused on College Life, Employment Goal, First Job Satisfaction

강혜영, 정태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

Hye-young Kang, Tae-chong Chung*

Department of Career Counseling, HRD Graduate School, KOREATECH, Cheonan 31253, Korea

[요 약]

본 연구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의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전공선택 후회여부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의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전공선택 후회이유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에 따른 네 집단 간에 대학생활, 취업목표, 첫 일자리 만족 등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가?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흥미나 적성과 같은 내적동기로 전공선택을 할 경우에 외적동기의 경우보다 적게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적동기로 전공선택을 한 경우에 가장 큰 후회이유는 '취업의 어려움'이었으며, 외적동기의 경우에는 '적성에 맞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네 집단 간에 대학생활, 취업목표, 첫 일자리 만족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differences of major selection regret and reasons by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differences of college life, employment goal, first job satisfaction among groups by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regret of college graduates. For this study, '2013 Year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of KEIS was examined by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major selection by intrinsic motivation, less regrets were given than extrinsic motivation. Second, the biggest reason of regret was 'difficulty of unemployment' in case of intrinsic motivation and 'not fit in aptitude' in case of extrinsic motivation.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of college life, employment goal, first job satisfaction among four groups by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regret.

Key Words: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goal, First job satisfaction,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election regret

http://dx.doi.org/10.14702/JPEE.2017.15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5 August 2017; **Revised** 15 October 2017
Accepted 23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E-mail: misharp@hanmail.net

I. 서 론

청년층의 취업문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 청년층 실업률이 2014년보다 0.2% 증가한 9.2%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2년의 7.5%에 비하면 1.7%가 증가한 수치이다. 더욱이 취업준비생은 약 61만 명으로 5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준비도 안 하는 20대는 27만 6천명으로 3만 명이 증가하였다. 2013년 이후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보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및 대졸자의 절반이상이 대학진학을 후회하고[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20대 청년층의 약 절반 정도가 전공분야를 바꾸고 싶다고 하였다[2]. 이와 같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학생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진로교육과 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진로교육과 상담에서 전공이나 직업과 같은 진로선택의 이론적 토대로 Holland 일치성(congruence) 이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Holland(1985)는 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 환경에서 일을 할 때 만족하고 성과도 높으며 지속적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3]. 현재 이러한 일치성 가정은 흥미검사나 진로상담에서 학생들의 진로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일치성 가정을 지지하고 있지만[4,5]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치성 가정이 일관되지 않음을 나타낸 연구[6,7]들도 있으며, 이렇듯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일치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개인이 가진 경험이나 다양한 상황과 같은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8]도 있다. 최근 강혜영(2011)과 박지혜와 강혜영(2013)은 흥미-전공일치도가 낮더라도 전공적응을 잘하는 경우와 흥미-전공일치도가 높더라도 전공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일치도와 전공적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9,10]. 이는 흥미와 적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만을 고려한 전공선택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전공선택을 후회한다는 것을 본다면, 비록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였더라도 이를 후회하고 대학과 직장생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전공선택후회(후회여부, 후회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네 집단 간에 대학생활, 취업목표, 첫 일자리 만족 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연 흥미와 적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내적동기의 전공선택이 외적동기의 전공선택에 비해 대학과 취업, 직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전공선택 후회여부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의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전공선택 후회이유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에 따른 네 집단 간에 대학생활, 취업목표, 첫 일자리 만족 등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대학의 전공선택은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며 이는 대학생활과 졸업 후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건남과 정철영(2009)은 전공선택을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와 자기이해(흥미, 가치관, 성격, 능력 및 기술), 환경(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라고 하였다[11]. 동기가 목표지향활동이 유발되고 유지되는 심리적 과정[12]임을 보면 전공선택동기란 전공선택에 있어 자신이 특정 전공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나 계기[13]라 할 수 있다.

동기를 행위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면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나누어진다. 내적동기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힘의 근원이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과제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흥미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며 외적동기는 행위를 유발하는 힘의 근원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써 보상 또는 처벌과 같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흥미, 즐거움, 만족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은 모두 외적동기로 분류하고 있다.

Ryan과 Deci(2000)는 이러한 내적동기와 외적동기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음을 이야기 하며 스스로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외적동기들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같은 인간의 기본심리욕구가 행동의 기초에 있다고 제안하였다[14]. 동기가 연속선상에 있다고 해서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의 관계가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외적동기가 낮아지는 서로 반대적인 성향의 양극적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많은 학자들은 두 동기가 상호독립적인 차원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두 동기의 상관이 -.20대로 낮음을 들고 있다[15,16]. 또한 이 두 동기간의 관계

에 대해서는 서로 도움을 준다고도 하고 해를 끼친다고 보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이론에서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가 상호보완적인 역할로써 외적보상이 내적 동기를 증가시킨다고 보는 반면에 Deci, Lepper와 Greene 등 많은 학자들은 외적동기가 내적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 하대현(2003)은 이와 같은 내적동기에 대한 주요 논점을 소개하면서 외적보상은 일반적으로 내적동기를 저해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며 보상의 성격, 제시방법, 보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라 내적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5].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내적동기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내적동기가 높으면 호기심이 많고 도전적이며[18] 자기효능감[19], 학업성취[16], 대학생활적응[20] 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외적동기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19], 학업성취[16] 등에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내적동기가 학업적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공부할 마음을 자극시키지만 실제 학업성취는 낮음을 보인 연구[21]도 있으며, 외적동기가 대학생활적응이나 학업성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하는 연구[20,21]도 있어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Table 1. Respondents characteristics

구분		*n*	비율(%)
성별	남	9,528	52.5
	여	8,632	47.5
연령	20대	16,922	93.2
	30대	702	3.9
	40대 이상	536	3.0
대학	전문대학	5,395	29.7
	교육대학	440	2.4
	4년제 대학교	12,325	67.9
전공계열	인문계열	2,087	11.5
	사회계열	3,524	19.4
	교육계열	1,513	8.3
	공학계열	4,986	27.5
	자연계열	2,290	12.6
	의학계열	1,151	6.3
	예체능계열	2,609	14.4

주. *N*(표본 수) = 18,160.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년 대졸자직업이동경

표 2. 변수의 구성

Table 2. Composition of variables

구분		문항	내용
전공선택	전공선택동기	F9	졸업한 대학의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1~7) (내적동기 = 흥미와 적성, 외적동기 = 직업 및 취업전망, 성적, 타인의 권유,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기타)
	전공선택후회여부	F10	전공 재 선택 시 동일 전공 선택 여부 (후회 없음 = 1. 그렇다, 후회함 = 2. 아니다)
	전공선택후회이유	F10-1	동일 전공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이유(1~7) (적성, 취업, 임금, 전망, 학업, 관심분야, 기타)
대학생활	학업성취	F14	졸업평점(4.0/4.3/4.5) (4.5 만점으로 환산)
	대학 만족도	F13	학교의 전반적 만족수준 (1~5점 리커트 척도)
취업목표	취업목표설정여부	J1	졸업 이전에 설정한 취업목표 유무 (있음 = 1. 그렇다, 없음 = 2. 아니다)
	취업목표달성여부	J5	취업목표로 설정한 직업, 직장 달성여부 (달성 = 1. 그렇다, 미달성 = 2. 아니다, 목표 없음 = 3. 설정안함)
	취업목표 미달성 이유	J6	취업목표를 이루지 못한 주된 이유(1~10) (너무 높은 목표, 정보부족, 경제적 여유, 가치관 변화, 준비시간부족, 자질부족, 학교 취업지원 부족, 일자리부족, 학업의 계속, 기타)
첫 일자리	만족도	D31-1	첫 일자리(직장)의 전반적 만족수준 (1~5점 리커트 척도)

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한 대상은 2012년 8월 혹은 2013년 2월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교육대학 등을 졸업한 18,160명이었다(표 1).

B. 변수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전공선택(동기, 후회여부, 후회이유), 대학생활(학업성취, 대학 만족도), 취업목표(설정여부, 달성여부, 미달성이유), 첫 일자리 만족도 등으로 GOMS의 관련문항은 표 2와 같다.

C.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전공선택후회여부와 후회이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대학생활(학업성취, 대학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집단 간에 취업목표(설정여부, 달성여부, 미달성 이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집단 간에 첫 일자리(직장)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A.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선택후회여부와 후회이유의 차이

연구대상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의 빈도는 표 3과 같다. 전공선택동기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분하였으며 내적동기에는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3.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를 배정하고, 외적동기에는 '직업 및 취업전망', '성적', '타인의 권유',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에 배정하였다.

연구대상 전체 18,160명 중 내적동기로 전공선택을 한 경우는 8,730명(48.1%), 외적동기로 선택을 한 경우는 9,430명(51.9%)이었으며, 전공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경우는 10,458명(57.6%),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경우는 7,702명(42.4%)로 나타났다.

1)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선택후회여부의 차이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선택후회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4와 같이 집단을 나누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18,160명 중,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집단은 5,736명(31.6%),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집단은 2,994명(16.5%),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집단은 4,722명(26.0%),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집단은 4,708명(25.9%)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증결과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선택후회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453.44, p < .001). 구체적으로는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에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후회하는 경우가 적

표 3.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 빈도

Table 3. Frequency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major selection regret

구분		*n*	비율(%)
전공선택동기	내적동기	8,730	48.1
	외적동기	9,430	51.9
전공선택후회여부	후회하지 않음	10,458	57.6
	후회함	7,702	42.4

주. *N*(표본 수) = 18,160

표 4.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선택후회여부 차이

Table 4. Differences of major selection regret or not by major selection motivation

구분		전공선택동기		계	χ^2
		내적	외적		
전공선택 후회여부	후회하지 않음	5,736(65.7%)	4,722(50.1%)	10,458(57.6%)	453.44***
	후회함	2,994(34.3%)	4,708(49.9%)	7,702(42.4%)	
계		8,730(100%)	9,430(100%)	18,160(100%)	

***p < .001

표 5.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선택후회이유 차이

Table 5. Differences of major selection regret reason by major selection motivation

구분		전공선택동기		계	χ^2
		내적	외적		
전공선택 후회이유	적성에 맞지 않아서	294(9.8%)	1,604(34.1%)	1,898(24.6%)	618.65***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960(32.1%)	1,208(25.7%)	2,168(28.1%)	
	취업 후 임금이 타 전공학과 졸업생에 비해 낮아서	311(10.4%)	318(6.8%)	629(8.2%)	
	관련 직업의 전망이 좋지 않아서	475(15.9%)	530(11.3%)	1,005(13.0%)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91(3.0%)	185(3.9%)	276(3.6%)	
	관심분야가 바뀌어서	788(26.3%)	803(17.1%)	1,591(20.7%)	
	기타	75(2.5%)	60(1.3%)	135(1.8%)	
계		2,994(100%)	4,708(100%)	7,702(100%)	

***p < .001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선택후회이유의 차이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선택후회이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7,702명 중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2,994명(38.9%)은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960명, 32.1%)를 들었고, '관심분야가 바뀌어서'(788명, 26.3%), '관련 직업의 전망이 좋지 않아서'(475명, 15.9%), '취업 후 임금이 타전공학과 졸업생에 비해 낮아서'(311명, 10.4%), '적성에 맞지 않아서'(294명, 9.8%),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91명, 3.0%), '기타'(75명, 2.5%)로 나타났다.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4,708명(61.1%)은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적성에 맞지 않아서'(1,604명, 34.1%)를 들었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1,208명, 25.7%), '관심분야가 바뀌어서'(803명, 17.1%), '관련 직업의 전망이 좋지 않아서'(530명, 11.3%), '취업 후 임금이 타전공학과 졸업생에 비해 낮아서'(318명, 6.8%),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185명, 3.9%), '기타'(60명, 1.3%)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선택후회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618.65, p < .001). 요약하면,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학생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이 가장 큰 후회이유로 나타났고,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학생의 경우 적성에 맞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 가장 큰 후회이유로 나타났다.

B.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집단 간 대학생활의 차이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대학생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학업성취(졸업평점)와 대학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1) 학업성취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학

표 6. 집단 간 학업성취 차이

Table 6. Differences of academic achievement among groups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내적-후회무(a)	5,463	3.74	0.39	69.22***	a>c>b>d (DunnettT3)
내적-후회유(b)	2,867	3.69	0.40		
외적-후회무(c)	4,501	3.72	0.40		
외적-후회유(d)	4,519	3.63	0.42		
계	17,350	3.70	0.40		

***p < .001

표 7. 집단 간 대학 만족도 차이

Table 7. Differences of college satisfaction among groups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내적-후회무(a)	5,736	3.57	0.82	356.71***	c > a > b, d (Dunnett T3)
내적-후회유(b)	2,994	3.23	0.89		
외적-후회무(c)	4,722	3.63	0.74		
외적-후회유(d)	4,708	3.18	0.86		
계	18,160	3.43	0.85		

***$p < .001$

업성취(졸업평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졸업평점을 기재하지 않은 810명을 제외한 17,35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74로 가장 높은 졸업평점을 나타내었으며,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72,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3.69,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3.63로 나타났다. Levene 등분산 검정결과($p < .001$) 집단 간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Dunnett T3로 사후검증을 했으며 모든 집단 간에 졸업평점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대학 만족도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대학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7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63으로 가장 높은 대학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57,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3.23,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3.18로 나타났다. Levene 등분산 검정결과($p < .001$) 집단 간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Dunnett T3로 사후검증을 했으며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집단 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집단 간에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집단 간 취업목표의 차이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취업목표 설정여부, 취업목표 달성여부, 취업목표 미달성 이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1) 취업목표 설정여부

집단 간 취업목표 설정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 대상에서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는 7,891명(43.5%)로 나타났다. 집단 별로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45.8%,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은 41.8%,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9.3%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증결과 취업목표 설정여부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73.10$, $p < .001$).

표 8. 집단 간 취업목표 설정여부 차이

Table 8. Differences of employment goal setting among groups

구분		집단				계	χ^2
		내적-후회무	내적-후회유	외적-후회무	외적-후회유		
취업목표 설정여부	목표설정	2,694 (47.0%)	1,371 (45.8%)	1,858 (39.3%)	1,968 (41.8%)	7,891 (43.5%)	73.10***
	설정안함	3,042 (53.0%)	1,623 (54.2%)	2,864 (60.7%)	2,740 (58.2%)	10,269 (56.5%)	
계		5,736 (100%)	2,994 (100%)	4,722 (100%	4,708 (100%)	18,160 (100%)	

***$p < .001$

표 9. 집단 간 취업목표 달성여부 차이

Table 9. Differences of employment goal achievement among groups

구분		집단				계	χ^2
		내적-후회무	내적-후회유	외적-후회무	외적-후회유		
취업 목표 달성 (직업)	목표 달성	1,464 (54.3%)	572 (41.7%)	1,120 (60.3%)	887 (45.1%)	4,043 (51.2%)	184.81***
	미달성	1,117 (41.5%)	679 (49.5%)	604 (32.5%)	914 (46.4%)	3,314 (42.0%)	
	목표 미설정	113 (4.2%)	120 (8.8%)	134 (7.2%)	167 (8.5%)	534 (6.8%)	
계		2,694 (100%)	1,371 (100%)	1,858 (100%)	1,968 (100%)	7,891 (100%)	
취업 목표 달성 (직장)	목표 달성	1,512 (56.1%)	626 (45.7%)	1,174 (63.2%)	946 (48.1%)	4,258 (54.0%)	136.83***
	미달성	1,124 (41.7%)	707 (51.6%)	658 (35.4%)	965 (49.0%)	3,454 (43.8%)	
	목표 미설정	58 (2.2%)	38 (2.7%)	26 (1.4%)	57 (2.9%)	179 (2.2%)	
계		2,694 (100%)	1,371 (100%)	1,858 (100%)	1,968 (100%)	7,891 (100%)	

***$p < .001$

2) 취업목표 달성여부

취업목표를 설정한 7,891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 취업목표(직업, 직장) 달성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단, 목표 미설정으로 분류된 것은 직업목표나 직장목표 중 하나를 세우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취업목표(직업)를 달성한 전체 비율은 51.2%로 나타났다. 집단 별로 취업목표(직업)를 달성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60.3%로 가장 높았으며,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은 54.3%,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은 45.1%,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41.7%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증결과 집단에 따라 취업목표(직업) 달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84.81$, $p < .001$).

취업목표(직장)를 달성한 전체 비율은 54.0%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취업목표(직장)를 달성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은 56.1%,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은 48.1%,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45.7%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증결과 집단에 따라 취업목표(직장) 달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36.83$, $p < .001$).

3) 취업목표 미달성 이유

취업목표를 설정한 7,891명중 직업이나 직장목표 중 하나라도 이루지 못한 3,922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 취업목표 미달성 이유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교차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은 취업목표를 미달성 한 이유가 학업의 계속이 23.4%로 가장 높았으며, 준비시간의 부족 18.8%, 자질의 부족 13.1%, 일자리부족 11.0%,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목표상실 10.6%로 나타났다.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은 준비시간의 부족이 18.8%로 가장 높았으며, 자질의 부족 17.8%,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목표상실 16.5%, 학업의 계속 12.5%, 일자리 부족 12.0%로 나타났다.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은 학업의 계속이 19.6%로 가장 높았으며, 준비시간의 부족 18.7%, 자질의 부족 12.8%, 일자리 부족 11.5%, 너무 높은 목표 10.1%로 나타났다.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은 준비시간의 부족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자질의 부족 15.1%, 학업의 계속 13.5%,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목표상실 13.4%, 일자리 부족 10.4%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증결과 집단에 따른 취업목표 미달성 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11.18$, $p < .001$).

D.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집단 간 첫 일자리(직장) 만족도 차이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첫

표 10. 집단 간 취업목표 미달성 이유 차이

Table 10. Differences of employment goal failure reasons among groups

구분		집단				계	χ^2
		내적-후회무	내적-후회유	외적-후회무	외적-후회유		
취업 목표 미달성 이유	너무 높은 목표	76 (5.9%)	51 (6.4%)	75 (10.1%)	103 (9.4%)	305 (7.8%)	111.18***
	정보부족	74 (5.8%)	41 (5.1%)	55 (7.4%)	82 (7.5%)	252 (6.4%)	
	경제적 여유부족	71 (5.5%)	45 (5.6%)	29 (3.9%)	58 (5.3%)	203 (5.2%)	
	가치관 변화	136 (10.6%)	132 (16.5%)	72 (9.7%)	147 (13.4%)	487 (12.4%)	
	준비시간 부족	241 (18.8%)	150 (18.8%)	139 (18.7%)	204 (18.6%)	734 (18.7%)	
	자질부족	168 (13.1%)	142 (17.8%)	95 (12.8%)	166 (15.1%)	571 (14.6%)	
	학교취업지원부족	7 (0.5%)	10 (1.3%)	11 (1.5%)	16 (1.5%)	44 (1.1%)	
	일자리 부족	141 (11.0%)	96 (12.0%)	86 (11.5%)	114 (10.4%)	437 (11.1%)	
	학업의 계속	300 (23.4%)	100 (12.5%)	146 (19.6%)	148 (13.5%)	694 (17.7%)	
	기타	66 (5.2%)	33 (4.1%)	37 (5.0%)	59 (5.4%)	195 (5.0%)	
	계	1,280 (100%)	800 (100%)	745 (100%)	1,097 (100%)	3,922 (100%)	

***$p < .001$

표 11. 집단 간 첫 일자리(직장) 만족도 차이

Table 11. Differences of first job satisfaction among groups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내적-후회무(a)	1,521	3.00	0.97	13.33***	a > d c > b, d (Dunnett T3)
내적-후회유(b)	1,036	2.92	0.97		
외적-후회무(c)	1,107	3.08	0.90		
외적-후회유(d)	1,462	2.86	0.95		
계	5,126	2.96	0.95		

***$p < .001$

일자리(직장)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11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첫 일자리를 경험한 5,12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08로 가장 높은 첫 일자리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00,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2.92,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2.86으로 나타났다. Levene 등분산 검정결과($p < .001$) 집단 간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Dunnett T3로 사후검증을 했으며, 내적-후회무 집단과 외적-후회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외적-후회무 집단과 내적-후회유 집단, 외적-후회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V. 요약 및 시사점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진로·취업상담(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선택후회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

을 선택하는 것이 직업이나 취업전망, 성적, 타인의 권유,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공선택 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선택후회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후회의 가장 큰 이유가 '적성에 맞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로, 전공선택 동기에 따라 학생들의 부족한 점이 다르고 이에 따라 진로지도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취업과 관련된 현실적인 정보를,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적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는 대학생활(학업성취, 대학만족)에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졸업평점)은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72,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3.69,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3.63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경우에 학업성취가 높으며,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학업성취가 높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대학만족의 경우,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63으로 가장 높았고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57,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3.23,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3.18로 나타났다. 단, 전공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집단 간에 대학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학업성취와 대학만족으로 대표되는 대학생활의 경우, 어떠한 동기로 선택했든 전공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공에 대한 후회를 경험하는 전공불일치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는 취업목표(목표설정, 달성여부, 미달성 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취업목표설정은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비율이 47.0%로 가장 높았고,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45.8%,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41.8%,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39.3%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에 비해 취업목표설정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취업목표 설정에 대한 상담과 지도 시 전공선택동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내적동기의 경우와 달리,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했을 때는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경우에 취업목표설정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외적동기, 즉 경제적인 이유나 명성과 같은 외적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성취나 외적인 확신을 중요시하기에, 이미 생각한 대로의 성취나 그에 따른 외적인 확신을 어느 정도 얻고 있는 후회하지 않는 집단과 달리, 후회하는 집단은 성취나 외적인 확신을 얻지 못했기에 새로운 목표 설정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취업목표달성여부는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직업목표 60.3%·직장목표 63.2%로 가장 높았고,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직업목표 54.3%·직장목표 56.1%, 외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직업목표 45.1%·직장목표 48.1%, 내적동기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집단이 직업목표 41.7%·직장목표 45.7%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목표달성여부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학생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동기로 선택했든 전공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공에 대한 후회를 경험하는 전공불일치 학생들에 대한 취업상담과 지도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취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전공선택동기와 관계없이 전공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집단은 '학업의 계속'이 목표 미달성의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이 '준비시간의 부족'이었다. 반면에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집단은 '준비시간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이 '자질부족'이었다. 이는 전공선택후회여부가 취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도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취업상담 시,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공선택동기에 따라서도 목표 미달성 이유에 차이를 보였는데, 주목할 것은 목표 미달성 이유 중 '너무 높은 목표 설정'과 '정보부족'이라는 미달성 이유가 내적동기의 경우보다 외적동기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전공선택동기와 목표 미달성 간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취업상담 시, 전공선택동기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전공선택동기와 전공선택후회여부에 따른 집단 간 첫 일자리(직장)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전공선택동기가 외적이냐 내적이냐에 상관없이 전공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집단이 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선택을 후회하는 집단에 비해 첫 일자리(직장)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전공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첫 일자리(직장)의 만족도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학 재학시절에 전공선택 후회의 어려움을 겪는 전공불일치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상담과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전공선택후회여부는 대학생활, 취업목표설정, 첫 일자리 만족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학생들로 하여금 만족한 대학생활, 취업준비, 첫 직장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학시절, 전공선택후회의 문제 즉, 전공불일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6년 5월 27일에 개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패널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 된 논문을 정리한 것임.

참고문헌

[1] Daegu Shinmun, “College graduates 80% major regret,” May. 27, 2015 [Online]. Available: http://www.idaegu.co.kr/news.php?code=ec01&mode=view&num=165419.

[2] C. K. Chae, “Discordance and task between real and hope for major of college students,” KRIVET Issue Brief, 3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3.

[3]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5.

[4] M. H. Cha and J. A. Lee, “The relationships of perceived fi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31, no. 4, pp. 227-243, December 2012.

[5] T. J. Tracey, B. Wille, M. R. Durr, and F. De Fruyt, “An enhanced examination of Holland's consistency and differentiation hypothe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84, no. 3, pp. 237-247, June 2014.

[6] M. H. Hwang and H. C. Choi, “Convergent validity across korean holland code classification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2, pp. 995-1012, April 2012.

[7] G. Young, D. M. Tokar, and L. M. Subich, “Congruence revisited: Do 11 indices differentially predict job satisfaction and is the relation moderated by person and situation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2 no. 2, pp. 208-223, April 1998.

[8] D. L. Blustein,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and public policy*. Mahwah, NJ: Erlbaum, 2006.

[9] H. Y. Kang, “The relationship among interest-major congruence, self efficacy and major adjustment in science and engineering for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1, pp. 115-127, March 2011.

[10] J. H. Park and H. Y. Ka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terest agre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adaptation Departmen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 vol. 38, no. 1, pp. 69-85, March 2013.

[11] G. N. Lee and C. Y. Jyung, “The development of college major selection program model f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1, no. 1, pp. 87-110, March 2009.

[12] D. H. Schunk, P. R. Pintrich, and J. Meece,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3rd ed., (J. H. Shin translation), Seoul, Hakjisa, 2013.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13] Y.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Ph. D.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Busan, 2014.

[14] R. M. Ryan and E. L. Deci,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1, pp. 54-67, January 2000.

[15] D. H. Ha, “Intrinsic Motivation in the Classroo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7, no. 1, pp. 71-94, March 2003.

[16] M. R. Lepper, J. H. Corpus, and S. S. Iyengar,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in the classroom: age differences and academic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7, no. 2, pp. 184-196, May 2005.

[17] A. Y. Kim and S. A. Oh, “Classification of Motivation on the Continuum of Self – Determination,” *Journal of Edu-*

cation Psychology, vol. 15, no. 4, pp. 97-119, December 2001.

[18] S. Harter, "A new self-report scale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orientation in the classroom: Motivational and informational compon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7, no. 3, pp. 300-312, May 1981.

[19] G. H. Hwan and Y. K. Min,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optimism, motivati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9, no. 6, pp. 3089-3101, December 2007.

[20] Y. J.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Ph. 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2014.

[21] M. H. Lee, "Counseling strategies to improve Adolescents' academic performance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1, no. 3, pp. 703-721, August 2009.

강 혜 영 (Hye-young Kang)_종신회원

1990년 2월 :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학사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2005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2005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청소년상담, 상담기법, 상담마케팅

정 태 종 (Tae-chong Chung)

1993년 2월 : KAIST 생물공학과 학사
2015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 인력개발학과 석사
2017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 인력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7년 8월 ~ 현재 : 고용노동부 충주고용센터 소장
〈관심분야〉 고용서비스, 진로상담, 경력개발, 인공지능